

영어/번역 어떻게 가르칠까/공부할까? (I) — 영어/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탈이론적 방법론 서설

박 경 일
(경희대 영어학부)

1. 서론

국민적/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실용적인 견지에서 말하자면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시대의 우리 학문과 문화, 산업-경제와 정치-외교, 그리고 총체적 의미에서의 국력은 국민적 영어력(英語力)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적 영어력 향상의 문제는 나라의 명운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내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우리의 해외 유학비 지출이 지난 수년 동안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급기야 한해 (우리 교육부 1년 예산의 근 1/3에 상당하는) 7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어력이 그에 상응하는 향상을 보였다는 보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열등한 영어력과 열악한 (영어) 교육환경에 대한 비판만 무성하다. “서울대 신입생 4분의 1이 대학영어 수강 자격 미달” 운운하는 상황이 다반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사교육기관으로부터 영어 교습과 학습을 둘러싼 온갖 현혹적인 선전문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공교육체제와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뒤흔들고 있음에도, 정부 및 공교육기관들로부터 책임있는 대응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영어 교육 체제는 신뢰할만한 국민적 기초영어력의 구축에도, 고급의 전문적 영어 인력의 양성에도 실패하고 있다.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과 9-11 사태 중 우리 TV방송들의 미국 CNN뉴스 통역 보도는 전국민을 실망시키는 한심한 수준이었다. 호화로운 연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는 이 방송국들이 이 정도의 특수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시절 우리의 경제계 대표들이 외환을 조달하기 위해 뉴욕 증시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전문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들도 있었다.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각종 영문 관광 안내문들은 조잡하기 짝이 없는 수준들이 허다하며,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번역물들은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국제경쟁력이 나오겠는가.

더욱이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영문 해독과 번역을 요하는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이를 처리할 일손은 태부족이며, 인간의 일손을 거들 수 있는 기계번역의 실현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Time flies like an arrow.”를 “시간 파리는 화살을 좋아한다.”고 인식하는 기계번역(능력)은 굳이 과인적인 “번역의 비결정성”이론²⁾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텍스트의 미묘한 미결정적/비결정적 의미망을 인식/해독해내는 인간의 오묘한 인식/판단 능력을 대치할 수 없다. 기계번역은 인간의 능력을 대치하지 못한다. 앞으로 번역의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전문번역가의 양성은 그만큼 더 시급하고

1) ‘매일 대문짝만하게 나는 신문광고를 보면 “당신도 영어 박사가 될 수 있다” 등등 마치 기적이 금방 일어날 것 같고, 학교 교육은 무용지물처럼 보이게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현란한 광고에 혹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특별한 비법이나 소위 유명 강사의 학원을 기웃거린다.’ - 권오량, 「한국 영어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Agora. 2003. Vol. 1. No. 1), p. 8.

2) “번역의 비결정성”에 관해서는 노양진, 이승중, 좌인, 김순, 커크, 보스트롬 등의 글을 참조.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몇몇 대학(원)에서 번역 학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예들이다. 국가적인 통·번역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 외교, 경제, 통상 등에 있어서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굳건한 번역문화의 정착은 학문과 문화와 국력의 토대이기도 하다. 외국어의 통·번역에 있어 오역(誤譯)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불가피한 오역을 방지하거나 최소화시켜줄 교육과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 걸쳐 내실 있는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국가적인 중대사이다.

영어 교육 및 동전의 양면처럼 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번역 교육의 문제는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교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칠까”의 체험적 방법론은 곧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할까”의 실제적 방법론이 된다. 이 경우 영어/번역의 교육 문제 및 어떻게 가르칠까/공부할까의 문제가 하나의 통합된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교습자의 연구와 체험이 이론으로 남아 있지 않고 곧바로 학습자에 의해 실용화될 수 있다. 아래 글에서, 영어(학) 관련 이론가도 교육(학) 관련 이론가도 아닌 영어 교습자의 교육 체험에 의해서, 어떻게 영어/번역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로 영-한 번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다루어보려고 한다. 아울러 비전문가들의 아마추어리즘에 내맡겨진 우리의 번역문화를 근원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영어/외국어 전문가들과 기타 전공 학자들간의 학제간 협력에 의한 번역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도 촉구하고자 한다. 이 모든 논의들은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인문학을 활성화시키는 문제와도 결부될 것이다. 지면 관계상 본론에서는 우리의 번역문화의 현실과 영어/번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만을 살펴보고, 우리의 통·번역 관련 교과과정들에 대한 검토 및 보다 현실적인 영어/번역 교육을 위한 체험적 교습/학습 방법론 논의는 다음 논문을 위해 남겨둔다.

2. 왜 문학번역원인가?

우리의 번역 문화 현실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매우 비근한 예로 몇 가지 신문 보도를 보자. 한-일 월드컵 대회 중 템플 스테이(temple stay) 장소로 선정된 불교 사찰 31곳의 영문안내판들의 조사결과 “철자 틀리고 용어 제각각. . . 안내판 없는 곳도”, “사찰 안내판 영문표기 ‘엉터리’”, “잘못된 영문 안내판 실태 조사 나서라”(『법보신문』 2002년 4월3일), 불교학의 근간이고 불교 발전의 요체인 역경사업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중앙승가대의 역경과(譯經科) 30명 정원에 단 2명이 지원하여 폐과 위기에 봉착,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어찌나”, “역경인력 종단차원 양성 시급”(『현대불교』 2002년 3월 6일), “외국인이 볼 볼서가 없다”(『불교신문』 2002년 3월 26일), “외국 번역서 오역 많다”(『불교신문』 2002년 6월 4일), “안고쳐진 ‘엉터리 영어’ 표지판”, “법원 검찰청은 ‘Court & Pros(법원과 프로들)’”, “고속터미널은 ‘Ex Bus Term(舊 버스 터미널)’”(『조선일보』 2002년 1월 28일), “영어不通 국제도시(제주)”(『조선일보』 2002년 4월 8일), 노무현-부시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번엔 ‘easy man’ 통역 해프닝”(『조선일보』 2003년 5월 16일) 등등 한이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an easy man to talk to”라고 표현한다면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는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오해가 당사국들간의 외교적 불화/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미국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³⁾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마치고 만찬장으로 이동하면서 로즈가든⁴⁾에서 기자들과 만나 “I have found the President to be an easy man to talk to.”라고 말했다. 통역사는 이를 “나는 노 대통령이 매우⁵⁾ 얘기하기 쉬운 상대임을 느꼈다.”고 통역했다. 서울에서 TV

3) 4) 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 Rose Garden(미국 대통령 집무실 앞의 정원. 주로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장으로 사용된다) 등은 우리말로 음표기를 할 경우 그 뜻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5) 주어진 문장에는 “매우”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통번역자에게 과잉 흥분 상태 또는 수사적인 과장은 금물이다. 모두 원의(原義)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해 공동회견을 지켜보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통역이 잘못된 것 같다. 빨리 정정하라.”고 워싱턴에 지시하였고, 정상회담 홍보팀은 통역사의 통역을 “저는 노 대통령님을 대화하기 편안한 상대로 느꼈다.”고 정정 발표했다. “얘기하기 쉬운 상대”라는 표현이 “단만한 상대”라는 뜻으로 전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조선일보』 2003년 5월 16일. 밑줄은 필자의 것).

지난 8월 국내 일간지들에 보도된 모 정부 부처의 오역 사고는 보다 즉각적인 파문을 촉발시킨 사건이다. 그 경위는 문제의 부처의 고위 관리가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8월22일자에 기고한 “Standing Up to the Press in Korea” (한국 언론에 맞서며) 제하의 글 중 “과거 정부는 긍정적인 기사를 기대하며... 향응-촌지 등 비합리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다(밑줄은 필자의 것)”는 원고 구절이 “regularly handed them envelopes of cash”로 번역돼 보도되었던 것이다.⁶⁾ 영문 번역과 최종본 작성을 책임진 담당자는 “향응”, “촌지” 등 적당한 영어 표현을 찾기 어려운 단어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글을 기고한 당사자는 “한국 언론이 정기적으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를 대표하는 한 정부 부처의 번역 책임자가 국가의 체신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내용을 조약하게 오역함으로써 원문을 왜곡시켜 원문필자와 그가 대표하는 부서 및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일은 결코 사소한 일과성 사고가 아니다. (이같은 민감한 문구의 번역에 대해서 누구도 사전에 문제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의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에 그 정도의 감각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적 체신을 유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적재적소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세계 제1이라 불리울 정도의 번역왕국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6)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8월 22일자)의 문제 기사의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다: The [government] officials curried various favors with the media, maintained a select group of supposedly influential reporters at each government agency, wined and dined them, and regularly handed them envelopes of cash.

20세기 들어 가장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룩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국가 발전의 핵심적 원동력은 번역이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또 한가지 비근한 예로 일본 불교가 종주국들인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 불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스즈끼 다이세츠(鈴木大拙)의 일본 불교 영역(英譯)에 크게 의존했던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 나라의 번역 문화는 그 나라의 총체적 학문과 문화의 토대이자 국력의 기둥이다. 올바른 영어/번역 교육과 번역 문화의 정착 없이는 올바른 학문, 올바른 문화, 탁월한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다. 올바른 영어/번역 교육에 의해 다져지는 건강한 번역 문화는 이 모든 것들의 기본적 인프라이다. 미국에서 한국의 역사를 가르칠 영문 텍스트 하나 없다는 수년 전의 언론 보도는 전문적 번역 요원 양성의 절박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비근한 예이다. 체계적인 영어/번역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인 중대 아젠다의 하나이다.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인터넷 정보의 아마도 90% 이상을 점유하는 영어 문헌의 우리말 번역 수요 역시 폭증하고 있음에도, 예컨대,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공사 등 다수의 국내 공공기관들 중 번역 전담 부서(외부 번역 관리 부서 포함) 없는 곳이 67.3%,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외부 번역사나 번역회사가 없는 기관들이 76.7%, 전적으로/주로 기관 내에서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이 72.6%인 것으로 한 조사결과에 나타났다. 이는 비전문가인 내부직원이 고유업무와 번역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을 시사한다. 또 번역자들 또는 번역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우리나라 번역물의 전반적 수준에 대해 약 57%가 불만족, 41%가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그 밖의 민간 분야의 경우에도 충분히 훈련된 전문 번역 요원 또는 외부 번역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우리 사회에는 조잡한 번역물/오역물들과 기형적인 초벌번역이라는 것들이 도처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 근년에 외국서적들의 번역출판이 급증하고 있는 출판계를 위한 체계적인 번역인력 양성과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전문 번역인력의 개발과 양성은 매우 시급한 시대적 요청이다.

“영어 과외 받는 東洋學科 학생” 제하의 이기동 교수(성균관대 유학·동양

7) 이승재 (외),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번역학연구』 제2권 2호, 57-107쪽) 참조.

학부)의 글(『조선일보』 2002년 4월 24일)은 매우 짧은 글이었지만 우리의 영어/번역 교육 및 학문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의적절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 글의 요지는 “실존철학, 포스트모더니즘, 구조주의, 해체철학, 과정철학 등이 등장하면서 서구사회를 지탱해온 이성주의가 해체된 채” 전통적인 철학과 사상이 벽에 부딪친 서구가 이의 극복을 위해 동양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의 동양전문가들을 서구로 진출시키기 위해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과외로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양의 철학 사상계의 박찬호와 박세리”들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학/동양학 학자, 스즈키 같은 동양학 전문번역가를 양성해야 한다. 성균관대학과 동국대학 등의 한국학/동양학 관련 학과들의 외국어/영어 및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비단 해당 대학의 해당 학문/학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학문과 문화의 근간을 지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 말씀 많은 BK21 사업 같은 것들은 바로 이런 분야에 거국적인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⁸⁾ 이는 비단 한국학과 동양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문과 문화 전반과도 관련된 중대한 현안이다.

예컨대,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기구를 “한국번역원” 정도로 확대 개편하여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전반에 걸친 번역 활동을 학문과 문화의 전문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지원/장려할 필요가 있다. 명색뿐인 지원으로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2002년도의 경우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현대문학 및 고전문학) 번역 지원(3천5백만 원 내외), 한국문학 해외출판 지원(현지의 출판 실정을 고려한 적정 금액. 수시 접수), 제1회 한국문학 번역 신인상 공모(단편소설 1편 英譯 당선작 상금 3백만 원) 등의 사업으로 우리 문학과 번역의 발전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를 단편소설 영역(英譯)의 상금이 3백만 원이라면 번역의 노고와 중요성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역량 있는 번역가가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8) “한국불교학, 세계학계서 국제학계서 왕따”, “영문학술지 발간 등 영어화시급” 등을 다룬 줄고 「동서비교문학: 왜 학문공동체 운동인가?」 참조.

그같은 노고를 감수하려 할지 회의적이다. 비단 문학뿐 아니라 과학-기술, 금융-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 걸쳐 폭증하는 정보들을 번역할 숙련된 일손들의 필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 절박한 상황을 아마추어들에 의한 초벌번역 수준에서 호구지책적으로 모면해나가려고 한다면 국가적 손실이 너무 막대할 것이다.

건강한 번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 학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번역활동에 대한 학문적 업적평가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재 단행본 한 권 분량의 번역물에 대한 학술적 업적평가는 대체로 (학술논문 1편을 100%로 가정한 경우) 200%를 상회하는 극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100%, 70%, 50% 등등으로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 같은 업적도 대체로 전공서적 번역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통합적인 학제간 연구를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 및 대학 정책에 이토록 역행할 수 없다. (더욱 아이러니한 일은, 한 학자가 여러 분야에 걸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아예 “학제간 연구”로 인정되지를 않는다.) 또 각종 학술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지원자 심사 과정이 과거의 연구업적에 크게 의존하는 제도여서 아무리 역량 있는 번역전문가도 기왕의 연구업적이 미비할 경우 번역 지원의 수혜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탁월한 가창력과 음악성을 구비한 (신인) 성악가가 과거의 공연 이력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응분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제도이다. 역량 있는 외국어 전문가가 번역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낮은 번역 원고료 수준은 열악한 번역풍토의 개선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3. 번역문화 개혁을 위한 성찰들

우리의 번역문화는 매우 혼란스러운 총체적 퇴행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영어/외국 및 번역 교육제도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정보의 시대에 광범한 분야에 걸쳐 요구되고 있는 전문적인 영어/번역 인력을 적절히 교육/공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것 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범람이 번역문화를 비전문가들의 아마추어리즘, 심지어 일반대중의 부업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 누구도 이 같은 사태의 위협성과 위급

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위험한 수준으로 오염되고 있는 우리의 번역문화 현실을 점검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세 편의 글이 후진성과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 번역문화의 문제점들을 조명하고 있다. 정동호 교수의 「니체 저작의 한글 번역-역사와 실태」(『철학연구』 40집, 1997 봄), 이종숙 교수의 「번역, ‘번역바람’, 번역지침서의 세계」(『창작과 비평』 95호, 1997년 봄), 봉준수 교수의 「『황무지』 번역의 어려움」(『안과 밖』 제6호, 1999년 상반기)이 그 글들이다. 이 글들은 우리 번역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반면교사이기도 하다.

정교수의 글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니체 번역이 철학과는 무관한 사람들, 예컨대 화학 전공자, 국문학 전공자, 학력을 알 수 없는 사람, 번역문화가라는 애매한 직함을 가진 낯선 비전문가, 출판사 경영자, 전현직 중등교사 등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니체 저작에 제멋대로 이름을 붙이기, 마음 내키는 내용을 일부만 발췌-편집하여 출판하기, 일본 책/번역을 무차별 베끼기, 일본어 역어(개념)를 답습하기, 일본식 해석을 따르기, 무원칙하게 번역원본을 선택하기, 최근의 학계 동향도 모른 채 낡은 텍스트의 번역을 되풀이 하기, 상업적 이해와 공허한 명성을 위해 번역된 책을 거듭해서 번역하기, 남의 해설 등을 표절 또는 무단전재하기 등이 횡행해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결과로 니체 번역은 다소 활기를 띄었지만, 정상적인 니체 사상의 수용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정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비전문가들이 번역을 할 경우 내용(사상)이 아니라 고작 “말”을 우리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문맥이 분명치 않고 내용이 어렵기 짝이 없다는 독자들의 불평이 잇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니체는 많이 읽혔으며, 좀처럼 이해되지 않은 철학자가 되었다(정동호 185).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조악한 번역물들이 개선된 수준급의 정상 번역 또는 책임 번역의 보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니체 번역은 니체를 전공한 정통 철학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니체 번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번역 및 출판 풍토 전반에서 광범하게 목도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종숙 교수는 근래 우리의 번역문화에 일고 있는 국가적, 학문적 열기 속에서 “그 학문적 관심이 사실은 번역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우리 문학을 외국어로 옮기기 위한 준비작업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외국문화를 우리말로 옮기는

일은 학계 밖의 일반대중이 맡게 된” 상황을 경고하고, 이 같은 거센 대중적 “번역바람”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창을 열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도”, “밀려들어오는 외국문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문화의 중심적 텍스트들”에 대한 “표준 번역본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쓰고 있다. 대중문화의 폭발적 수요는 번역을 월수 50-80만원의 대중적 인기부업으로 만들고, 주부들 간에까지 “자기 개발과 수입 짝질”한 번역 부업 열풍을 일으키면서, 번역사 자격 시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만 여 명씩 떼지어 몰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만, 안전하고 건전한 번역문화를 담보하는 국가적 정책도, 학계의 상응하는 관심도, 제대로 된 상업적 번역지침서도, 무엇보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어학 실력의 절대적 빈곤에서 생기는 오역만은 적어도 제거된 번역본이 확보”되어야 하고, “원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실하게 옮긴 표준 번역본”이 공급되어야 한다(이종숙 241).

봉준수 교수의 글은 전문 분야의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상기시켜 준다. T. S. 엘리엇의 『황무지』 제55행에 나오는 “the Hanged Man” 같은 구절은 전문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오역이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이다. 봉교수에 의하면, 이 구절은 여러 번역본들에서 “교살 당한 사나이”, “그 絞殺된 男子”, “교살 당한 사내”로 번역되고 있다. 봉교수의 다음 언급은 번역을 위해서는 물론 인류학적인 흥미를 위해서도 인용될 필요가 있다.

태로우 카드에 그려진 문제의 인물은 “한 쪽 다리로 매달려 있[는]” 까닭에 목에 밧줄이 걸린 상태로 교수형을 당한 것은 결코 아니며, “교살”, 즉 누군가에게 목이 졸리어 살해당한 것도 아니다. 직접 태로우 카드를 확인해보면 이 인물은 한 쪽 발이 밧줄에 묶여 T형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고, 머리 주위에서는 성자들에게 볼 수 있는 원광이 빛나고 있다. 또한 그의 얼굴은 신비스러운 희열을 표현하고 있으며, 눈을 뜨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 좀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유보된 삶” 혹은 “정지된 삶”(life in suspension)이다(봉준수 137-8).

봉교수의 결론은 “매달린 사람”으로 옮기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봉준수 138).

이든 그레이의 『태로우 숙달하기』(Mastering the Tarot)의 “The Hanged Man” 카드 해설은 봉교수의 해석과 함께 그 자체로서도 흥미 있을 뿐 아니라, 『황무지』, 나아가서 엘리엇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시사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9)

The implication of this card is: SELF-SURRENDER TO HIGHER WIS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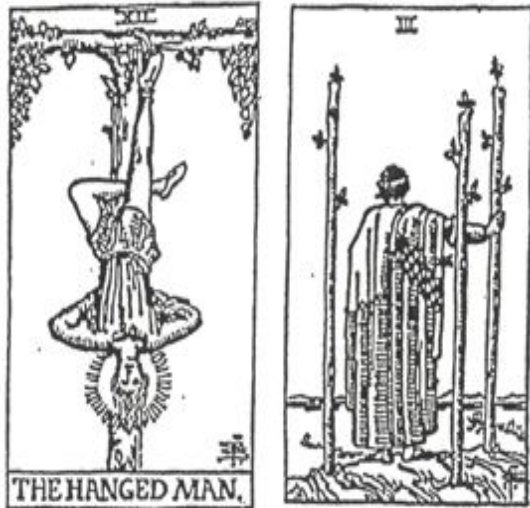
Interpretation:

Spiritual growth; surrender to a higher wisdom. A complete reversal of one's usual way of life. Dependence no longer on the self but on the Creative Intelligence that runs the universe.

Material temptations should be conquered. A period of indecision in one's life. The ability to prophesy to some degree.

Reversed: Preoccupations with the concerns of the self. Absorption in physical matters. Resistance to spiritual teachings. False prophecy.

In a Reading: At first glance, many people are repelled by this card; to



9) 역시 『황무지』 51행에 나오는 “The Man with Three Staves” 카드(“The Hanged Man” 카드 오른쪽)는 여러 번역본에서 “지팡이 셋 짙은 사나이”, “세 갈래 장대를 가진 사나이”, “장대 세 개를 가진 사나이”, “세 막대기를 가진 남자”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봉준수 138). 안중은 교수가 『태로 카드: 『황무지』의 해석 기법』에서 몇몇 태로 카드들의 그림을 소개하며 이를 “세 개의 막대기와 남자”로 번역하고 있어 특이하다. 그러나 안교수 역시 “The Hanged Man”을 그림과 맞지 않게 “교살 당한 남자”로 번역하고 있다.

them a hanged man means torture and pain. But a closer look shows that there is a look of contentment(Gray 122-3)

“거꾸로 매달린 사람”(필자의 번역) 카드는 무엇보다도 영적 성장, 보다 높은 지혜에 내맡김을 상징한다. 일상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자아에 집착하지 않으며, 우주의 지혜에 의존하고, 물질적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인생의 유동적인 미결정의 시기로, 결단 여부에 따라서는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전도되면 자아(의 관심사들)에 집착하게 되고, 물질과 육체에 탐닉하게 되고, 정신적 가르침에 저항하게 된다. 이 때 거짓 예언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황무지』에 대한 해석은 “현대문명에 대한 환멸의 표현”으로부터 “개인적인 투덜거림”까지 다양하다. 그 중 하나의 해석이 불교적인 “반야지(般若智)” 같은 것의 추구라는 것이다. 동서철학에 두루 정통했던 철학자 출신의 시인 엘리엇에 관한 아마도 가장 탁월한 연구자인 C.M. 켄즈는 엘리엇(의 『황무지』)을 이런 시각에서 읽고 있으며, 필자 역시 똑같은 근거들로는 아니지만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엘리엇은 『네 4중주』에서 “그대가 모르는 것에 이르자면/무지의 길로 가야 한다./그대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소유코자 한다면/무소유의 길을 가야 한다./그대가 아닌 것에 이르자면/그대이지 않은 길로 가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것은 가히 “길 아닌 길”, “자유로이 봄”[觀自在]에 대한 비전이 아니겠는가. 엘리엇은 또 이미 그의 초기 미발표 철학 에세이에서 우리가 발견했을 지혜는 책이 아니라 여백에 연필글씨로 쓰여진다고 썼었다. 그것은 곧 문자를 세우지 않되[不立文字] 문자를 떠나지도 않음[不離文字], 그리고 무설(無說)의 가르침에 대한 통찰이다. 켄즈는 엘리엇이 불교도가 됨이 없이 가장 불교적인 감수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태로우의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 해석은 바로 이런 읽기를 뒷받침해준다.

전문 지식의 부족은 텍스트 읽기를 근원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전문번역가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관념주의 철학자 출신의 시인-비평가 엘리엇을 논의하는 글에서 “realism”(실재론)을 “사실주의”로, “idealism”(관념론)을 “이상주의”로 번역하는 것은 때로 치명적인 오역이 될 수 있다. 고급의 번역 작업은 출전 텍스트를 독자적으로

(literally) 표적 언어로 옮기는 단순 작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번역의 핵심은 정확한 텍스트 읽기이다.

4.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동양사상과 홀로그래피(holography)

번역의 생명은 출전 텍스트(source text)의 형식과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읽어 그 의미를 충실하게 표적 언어(target language)로 옮기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좌이적인 번역의 비결정성/미결정성(indeterminacy), 해체론적인 의미의 무한한 표류나 퍼스-에코적인 해석의 한계 등 의미의 비결정성/미결정성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들이 있겠으나,¹⁰⁾ 단 한 줄일지라도 글에는 최소한 일반적으로 전달되고 이해되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에 가장 가깝게 텍스트를 읽어내고 이를 표적 언어로 최대한 충실하게 옮기는 것이 번역(자)의 소임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자의 “개인적 해석”을 가미하고 운문한다든가(김용옥 교수의 『이성의 기능』 번안, 각주를 본문에 삽입시킨다든가(이정기 교수의 『황무지』 번역, 이종인의 『소쉬르』 번역), 긴 단락을 짧게 구획한다든가(남수인 교수의 『글쓰기와 차이』 번역), 출전 텍스트의 문체나 분위기를 바꾼다든가(최재서 교수의 『햄릿』 번역의 경우 출전 텍스트의 분위기를 표적 언어의 문화에 조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의될 만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번역자와의 협의도 없이 출판사 편집부에서 제대로 된 번역을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원본에 없는 사항을 임의적으로 첨부한다든가(『교수신문』 2002년 2월 18일자에 보도된 이종영 교수의 「출판 번역, 이것이 문제이다」 참조.) 하는 일들은 모두 출전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실을 제1의 임무로 하는 번역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파행들이고 텍스트를 손상시키는 행위들이다. 또 의미 전달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 또는 미문(美文)을 위해서, 번역이 출전 텍스트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출전 텍스트의 엄격한 사실들(hard facts)을 최대한 충실하게 보존한다는 번역 본연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

10) 해체주의와 무한한 기호 현상 또는 기표의 표류와 관해서는 김성도 188, 189쪽 참조.

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번역은 텍스트/사실을 허위화시키는 해석/설명과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텍스트를 (정확히) 읽느냐의 문제는 번역 그 자체보다 선행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 사실이--심지어는 전문가들에게도--흔히 간과되고 마치 번역이 오로지 “이론”과 “기교/기술”의 문제인 듯이 인식되고 교육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지난 가을 한 계간 문예지를 위한 원고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교습자와 학습자 모두를 위해 텍스트 읽기 및 번역의 방법론/자세에 관한 하나의 계몽적 시사가 될 것이다. 실수가 난 문체의 글은 하와이 대학의 저명한 동양철학자 로저 T. 에임즈 교수가 집필한 『루틀리지 철학 백과사전』의 “동아시아 철학”(East Asian philosophy) 항목의 한 구절로, 동아시아 철학에 있어서 모든 사람, 모든 사물들은 하나 하나가 모두 한 가족의 구성원들처럼 상호관계되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임을 지적하고, 하나 하나의 사물은 모두가 다른 모든 사물들을 자신의 연속된 존재를 위한 조건들로 수반하며/필요로 하며, 하나 하나의 존재는 다른 모든 하나 하나의 존재의 욕구/의지/만족에 맞추어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대목은 “Every thing is holographic in entailing all other things as conditions for its continued existence”였다.

이같은 문맥에서 “holographic”이라는 단어가 어찌면 동아시아 철학의 주요한 성격을 집약하는 매우 중요한 용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단지 상호관계적(cor-related, inter-related),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전일주의적(holistic) 정도의 의미일 것으로 추측될 뿐, 사전적으로는 그 정확한 의미가 좀처럼 파악되지 않았다. 비근한 예로, “홀로그래픽”의 명사형인 “홀로그래피”(holography)는 “홀로그램”(hologram) 생산의 과학/기술 정도로 기술돼 있고,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피”에 의해 생산된 3차원적인 영상 정도로 풀이돼 있다. 또 197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헝가리 출신의 엔지니어 데니스 가보르가 1947년 종래의 사진이 2차원적-따라서 “부분적”(정보만을 내포/전달)-임에 비해, 그가 발명한 (홀로그램) 영상은 3차원적-따라서 “전체적”(정보를 내포/전달)-임을 묘사하기 위해서 “전체”(entire/whole)라는 뜻의 희랍어 “홀로스”(holos)와 “기록/그림”(anything written or drawn)이라는 뜻의 “그라마”(gramma)를 합성하여 “홀로그램”(hologram)이라는 신어를 만들었다¹¹⁾는 설명

역시 여전히 위 구절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holographic”과 “entail”의 의미가 내내 미심쩍었으나, 일단 두 단어를 그냥 영어로 표기하고 의문부호까지 붙인 채 문제의 구절을 “하나 하나의 사물들은 모두 다른 모든 사물들을 자신의 연속된 존재를 위한 조건들로 수반함에 있어서/필요로 함에 있어서(entail) holographic(?)하다”고 원고를 써보냈다. 다음에 교정쇄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인데, 필자가 교정본 새도 없이 책이 인쇄되어 버렸고 필자 역시 다른 원고들로 쫓기느라고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한참 뒤에 책을 받고서야 이를 확인했으나,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집필자의 명예와 신뢰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점에서 번역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피말리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서는 학문적으로건 문화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간에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번역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줄고 「번역, 학문/문화/국력 그리고 영어교육」 참조). 물론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과 원어민들에게 문의를 하고 참고문헌들을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여서 정정기사도 내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문제의 잡지에는 만족할 해답을 발견하는 대로 정정 기사를 내고 사과를 할 생각이다).

원고 집필 당시 『루틀리지 철학백과사전』 출판사의 여러 부서들로 수 차례에 걸쳐 문제의 단어의 뜻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끝에 마침내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holographic”이라는 단어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utterly out of place in this context) 잘못된 단어로 생각되는데 “holistic”(전일주의적)으로 고쳐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답장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바로 다음 날인지 다시 이메일을 보내 “Although I *conjecture* a mistake here, I am not going to *assume* that it is a mistake, *let alone try to correct it*, until I have heard from him [Professor Ames].”(My italics and underlines)이라고 정정해왔다.) 그 역시 “holographic”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A document is said to be *holographic* if it is written by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issued”(My italics and underlines) 정도의 뜻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holographic”을 “holograph”(자필문서)의 형용사 정도로 읽을 경우 그야말로 “전혀 문맥에 맞지

11) A.T. Williams의 Energy and Energetics 참조.

않는”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한 철학백과사전을 위해 글을 쓰는 필자가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글의 문맥으로 비추어 볼 때도 “전일주의적”(holistic)이라는 뜻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holographic”이라는 단어는 보다 의미심장한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홀로그래픽”(holographic)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에임즈 교수의 이메일 답신은 1) “하나 하나의 특수한 것은 그 자체 내에 총체를 내포한다”(each particular has implicated within itself the totality), 2) “전체의 장은 초점 내에 내포된다”(the entire field [dao 道] is ... implicated within the focus [de 德] itself), 3) “전 우주는 이 하나의 ‘것’ 속에 내포된다”(The entire cosmos is implicated in this one "thing")로 요약된다. 그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홀로그래픽”은 화엄불교의 4법계 중 사사무애(事事無礙)의 개념과 유사하고, “부분과 전체 간의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의 정신” 같은 것이며, 한 그루 나무가 자양분을 얻기 위해 구름과 비(雨)와 태양을 필요로 하고, 그 나무를 베는 나뭇꾼은 그로부터 빵을 얻고, 베어진 나무로부터 종이 가 얻어지는 식으로 어느 것 하나도 불연속/분리/단절된(discrete) 것이 없고 일체의 존재/현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공생적(concrete)이라는 사상을 내포한다. 화엄불교의 이같은 상호구족(相互具足)의 개념은 마치 월남 출신의 망명 승려 틱낫한의 상호존재(interbeing), 러시아의 대화주의 비평가 미하일 바흐친의 공존재(co-being), 그리고 불교적 감수성을 보이는 미국 시인 개리 스나이더의 상호탄생(interbirth) 같은 것들을 연상시킨다.¹²⁾

물리학의 용어인 “홀로그래픽”이 이같은 동아시아철학적 함축들을 갖게 된 내력은 무엇인가? 물리학의 문외한으로서의 미흡한 조사에 의하면,¹³⁾ 3차원적 성격을 갖는 홀로그램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의 “장미꽃 홀로그램”은 - “장미꽃 사진”과는 달리 - 반으로 잘라 레이저 광선에 비추었을 경우, 각 반쪽은 여전히 그 장미의 완전한 영상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또 그 반쪽을 다시 반쪽을

12) interbeing, co-being, interbirth에 관해서는 각기 Thich Nhat Hanh의 Being Peace(pp. 83-102), Michael Holquist의 Dialogism: Bakhtin and His World(pp. 24-25), 김원중의 「동방의 빛을 찾아서: 현대 미시의 한 생태학적 경향」(536, 532-540)을 참조.

13) 홀로그램 및 홀로그래피에 관해서는 참고문헌의 관련 자료들을 참조했다.

내도 그 필름 조각은 항상 원래의 영상의-더 작기는 하지만-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를 보여준다. 보통의 사진들과는 달리, 홀로그램의 모든 조각난 부분은 하나 하나가 전체가 가진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하나의 홀로그램의 모든 하나 하나의 부분 속에는 전체가 들어 있다는 성격(“whole in every part” nature of a hologram)은 모든 것은 하나 하나가 모든 하나 하나를 상호관통한다(everything interpenetrates everything),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솔기 없는 거미줄이다(all of nature is ultimately a seamless web)는 화엄연기설적 교의의 현대물리학적 표현인 듯하다. 에임즈 교수가 “홀로그래픽”이 인드라의 망¹⁴⁾의 하나하나의 그물코들은 상호관통하며, 개개의 것은 그 자체 내에 총체를 내포한다는 화엄불교의 사사무애 개념과 유사하다고 부연했던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에임즈적인 읽기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우주론은 근원적으로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근원적인 상호의존적 생태의식, 나아가서 우주적인 상생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동양” 철학으로 알려진 유교, 도교, 불교 등을 포함하는 이 동아시아 철학은 서구적인 현상/실체의 2원론적 세계관 대신 우주 내의 일체 현상은 하나의 연속적인 “공생적”(concrete) 세계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세계의 질서/섭리는 어떤 독립적인 활력/생명력의 원천(independent, activating power)으로부터 연유하지도 않고 그에 의해서 부과된 것도 아니고, 세계 그 자체 내에 내재한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개개의 사람(person)의 문제와 관련하여 덧붙일 것은, 특정의 개인(person)은 어떤 타고난 본성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불연속적/분리된/추상적(discrete)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구성적인 역할들과 관계들의 중심”(a center of constitutive roles and relationships)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동아시아적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중 하나가 바로 “holographic”일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holographic”을 “전일주의적”으로 번역했을 경우, 또 “concrete”를 단순히 “solid, real, actual, not general/abstract” 등

14) 인드라(제석천)의 그물은 인드라의 궁전에 걸려 있는 장식용 그물로, 그물의 눈 하나 하나에 들어 있는 보석은 다른 모든 그물눈에 들어 있는 보석들의 영상을 비춘다. 이것은 화엄불교의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사상과 상통한다(김용운, 「과학 속의 불교 불교 속의 과학」 참조).

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번역했을 경우, 이 동아시아 철학의 아마도 가장 중요한 특징, 특히 현대 과학문명의 위기 및 생태-환경의 악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안적 비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동아시아의 상생적/공존적, 생태주의적 우주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논의의 단초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동아시아 철학의 “홀로그래픽”한 특징에 대한 이해는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 구두끈 이론 등의 현대물리학 이론들, 불교, 도교, 그리고 동양철학 전반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¹⁵⁾ 광범한 분야의 텍스트들을 전천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전문 번역가는 이런 모든 경우에 항시 미리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같은 대비가 미비할 경우 오역과 줄역은 불가피하고 우리의 학문/문화/국력은 그만큼 퇴보한다. 오늘의 지구/촌(glocalization) 시대, 다문화 시대의 번역전문가는 특히 전방위적인 텍스트 읽기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그같은 훈련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동양철학과 현대물리학, 생태적 사유와 문학적 상상력들 간의 보다 심원한 대화를 위한 부단한 비교학적인 의식과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 “미국 철학의 대부”였던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인 조시아 로이스의 “학문 방법의 다양 유형들의 비교연구” 세미나는 “수학으로부터 인식론에 이르기까지, 생물학으로부터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대학원 학생들 외에 화학, 생리학, 심리학, 병리학, 태이학, 통계학, 수학, 고고학, 경제학, 그리고 영문학과 미술 등 광범하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서로 대화하도록 중재했다. 로이스적인 일종의 학문적 어음교환소(clearing-house) 같은 것에 대한 훈련이 영어/번역 교육을 위한 필수과정의 하나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영어/번역 교육이 인문학적 소양(liberal arts literacy)의 증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며, 이런 점에서 인문학의 발전은 영어/외국어 및 번역 교육(의 발전)과 순환적인 상호관계를 갖는다(줄고 「T.S. 엘리엇: 인문학과 비교문학의 보고」 및 「동양담론은 공허한가(I): “총체적 동양담론”의 모색을 위한 방법서설」 참조).

참고문헌

15) “홀로그래픽”과 현대물리학 및 동양사상 간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의 309-328, 335-348쪽, 및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37, 75-77, 82-3, 88-93, 264-5, 284-9쪽 참조.

- 권오량, 「한국 영어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Agora*. Vol. 1. No. 1 (2003).
- 김성도. 『현대기호학강의』. 민음사, 1998.
- 김용운. 「과학 속의 불교 불교 속의 과학」. 『현대불교』. 1998년 7월1일자. 김원중. 「동방의 빛을 찾아서: 현대 미국시의 한 생태학적 경향」. 『영어영문학』. 제44권 3호(1998 가을).
- 데리다, 자크. 『글쓰기와 차이』. 남수인 역. 동문선, 2001.
- 노양진. 「번역은 비결정적인가?」. 『철학』. 제48집(1996가을). 275-301.
- 박경일. 「동서비교문학: 왜 학문공동체인가?」, 『동서비교문학저널』. 제4호(2001년 봄-여름).
- _____. 「동양담론은 공허한가(I): “충체적 동양담론”의 모색을 위한 방법서설」. 『오늘의 동양사상』. 제7호(2002 가을-겨울).
- _____. 「번역, 학문/문화/국력, 그리고 영어교육」. 『번역학 연구』. 제3권 1호 (2002년 봄).
- _____. 「T. S. 엘리엇: 인문학과 비교문학의 보고」. 『인문학연구』. 제5호(2001년).
- 봉준수. 「『황무지』 번역의 어려움」. 『안과밖』. 제6호(1999상반기).
- 셰익스피어, 윌리엄. 『햄릿』. 최재서 역. 문원사, 1972.
- 안중은. 「태로 카드: 『황무지』의 해석 기법」. 『T.S. 엘리엇의 시와 비평』. 브레인하우스, 2000.
- 이승중. 「의미와 해석에 관한 콰인-데이빗슨 논쟁」. 『철학』. 제39집(1993봄). 325-358.
- 이종숙. 「번역, ‘번역바람’, 번역지침서의 세계」. 『창작과 비평』. 95호(1997 봄). 228-243.
- 정동호. 「니체 저작의 한글 번역: 역사와 실태」. 『철학연구』. 40집(1997봄). 180-192.
- 카프라, 프리초프.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성범/김용정 역. 범양사 출판부, 1987.
- _____.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이성범/구윤서 역. 범양사, 1993.
- 컬러, 조나던. 『소쉬르』. 이종인 역. 시공사, 1998.

화이트헤드, A.N. 『이성의 기능』. 김용욱 역안. 통나무, 2000.

*Bostrom, Nick.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and the problem of explicating meaning: Understanding Quine's Thesis of Indeterminacy".

Davidson, Donald. "Radical Interpretation". *Dialectica*. 27(1974), 314-28.

Eliot, T.S.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3.

*Gabor, Dennis. "Holography 1948-1971"(Nobel Lecture, December 11, 1971).

Gray, Eden. *Mastering the Tarot: Basic Lessons in an Ancient, Mystic Art*.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73.

Gibson, Roger F. "Radical translation and radical interpretatio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 Craig. London and New York: 1998.

_____. "Translation, physics, and facts of the matter". L. Hahn and P. Schilpp. Eds. *The Philosophy of W.V. Quine*. La Salle, IL: Open Court Press, 1986.

Hall, David L. "Buddhism, Taoism and the Question of Ontological Difference". *Buddhism and the Emerging World Civilization*. Eds. Ramakrishna Puligandla & David Lee Miller. Carbondale &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P, 1996.

Hall, David L. & Roger T. Ames. "Daoist Philosophy".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 Craig. London and New York: 1998.

_____. "Dao".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 Craig. London and New York: 1998.

Hanh, Thich Nhat. *Being Peace*. Ed. Arnold Kotler. Berkeley, California: Parallax Press, 1987).

*Holophile, Inc. "About Holography".

Holquist, Michael. *Dialogism: Bakhtin and His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Kirk, Robert. *Translation Determined*. Oxford: Clarendon Press, 1986.

*Kisor, Michael. A Review of “The Holographic Universe”.

Quine, W.V.O. “Meaning and translation”. R.A.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_____. “On the Reasons for the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Journal of
Philosophy*. Vol. 67, No. 3(1970). 178-83.

*Williams, A.T. “Hologram (Information) Theory, Wave/Particle Duality and
Quantum Mechanics”. *Energy and Energetics*.

*Author Unknown. “The Holographic Principle and M-theory”.

*Author Unknown. “The Indra’s Net: What Is It?”

*Author Unknown. “The Universe as a Hologram”

(*표들은 인터넷 자료들임.)



[Abstract]

How to Teach/Study English/Translation? (I)
—A Non-Theoretical Introduction to Educating English/Translation
Specialists

Park, Kyung-Il

(Kyung Hee Universit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our natio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sciences, culture, industry, economy, politics and diplomacy, etc. is, to our regrets, heavily dependent upon the nation's English literacy, that is, advanced capabilities of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English. This suggests that in a sense it is vital for the nation to improve its English literacy to a degree that this age of globalization and exploding information requires. Nevertheless, it seems that our national educational systems have failed to meet this vital need to provide a proper English education for both the general public and specialists,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degraded, and even corrupted state of our translation culture, polluted with all kinds of mistranslations.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examine problematics of our present translation culture and propose an experiential, non-theoretical English teaching/learning method aimed at educating English as well as translation specialists, both of which this age urgently demands. The author will argue that the problem of educating English/translation specialists needs be dealt with as an integrated one.

▶주제어: 영어/번역 교육, 영어전문가 양성, 탈이론적 방법론